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사회학적 해법

노 윤 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조 선왕조 후기에 배출된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 대해 그의 인물평을 간단히 기술하라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역사학도들은 송시열을 두고, 그는 노론의 영수이며 조선 왕조 후기의 문신 정치가로서 17대 임금인 효종조에는 북벌 계획을 세워 병자호란의 와중에서 청태종에게 무릎 꿇은 인조의 삼전도 치욕을 씻으려 했으나 왕의 승하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반면에 사회학도들은 우암(尤庵) 송시열은 율곡 이이의 학통을 이어 받은 성리학자로 특히 주자학에 뛰어났으며, 사후에는 문묘에 배양된 대학자였을 뿐 아니라 생시에는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송자대전(宋子大典)을 비롯하여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긴 인물이라 평가할 것이다.

인품에 대해서도 송시열은 성품이 강직하였고 자기의 정파 세력을 조정하여 그의 정치 이념을 공문화하는 데 탁월한 솜씨를 보인 강력한 정치 지도자였다고 역사학자는 말한다. 그런가 하면 사회학자는 송시열은 편협된 외고집에 사로잡힌 노구(老癯)로 서인이 노·소론으로 양분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숙종조에는 조선 왕조 500년을 통해 가장 격심했던 당쟁의 역사를 초래케 한 장본인이라 혹평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같이 사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양측의 상반된 견해 차이가 자기네의 학설만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측의 이론을 들으려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이같은 비타협적 견해는 다름 아닌 교육상의 편견에 있

다고 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무슨 이유인지 역사와 사회학을 등한시 하고 영어·수학을 치중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역사와 사회학에 대한 지식 하향이 우리의 젊은 세대로 하여금 역사관의 결핍이나 왜곡된 사관을 갖게 함으로써 편향된 사고력을 갖는 사회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역사학이 미국 고교의 주요 과목이 된 시절이 있었으나 그 폐단이 지적됨에 따라 1960년대에는 사회개혁자인 컬럼비아 대학의 베아드(Charles Beard) 교수의 영향으로 사회학이 인기 과목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학이 각종 학문간에 상호 보완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과거의 암기식 교육 방법을 개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불식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 고교의 교과목은 하급 학년에서 기초 사회학을 이수케 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편향된 사고에서 탈피케 한 다음 상급 학년에서는 역사학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

역사학의 목적은 시민으로 하여금 문화 사회에 접촉할 수 있도록(문화의 전수) 한다는 과거의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사회를 개선(문화의 개혁)해야 한다는 혁신적 사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 부안군 위도가 방사성 폐기물(방폐물) 처분장으로 결정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 군민의 강력한 반

처분장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만으로는 처분장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 없다.

정부와 사업자는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에만 처분장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너무나 과학적 사실만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주민의 심리와 감성을 직시하는 사회과학적 접근법을 모색하여 주민을 설득하여야 한다.

발이 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반대하는 군민의 주장을 요약하면, 처분장은 방사선의 유출로 위험하고 이로 인해 상거래가 중단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됨으로써 군민의 생계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정부와 사업자는 처분장은 매우 안전한 시설임을 강조한다. 군민이 걱정하는 방사선 유출은 1년에 1밀리렘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한평생을 처분장 주변에 살아도 가슴에 X선 1회 촬영할 때 받는 방사선 정도에 불과하다.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사선 장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군민을 설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각종 사업에 엄청난(약 2조원)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군민은 처분장 시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방폐물 처분장은 매우 안전하다. 공학적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고 수십년간 처분장을 운영해 온 선진국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국내 원자력 발전(원전) 시설을 견학했고 또 일부 주민 대표들은 외국의 원전과 처분장 시설을 보았기 때문에 처분장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처분장 반대는 그렇게 격렬할까?

주민의 입장에서 처분장 반대의 이유는 명백하다. 혐오 시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님비(NIMBY) 현상이다. 우리 집 뒷뜰에 쓰레기를 묻겠다는 데 이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처분장 입지 선정을 놓고 많은 고

심을 해왔다. 안면도가 처분장 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는 이를 포기했고, 뒤이어 울진·영덕을 지정했으나 역시 주민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부안 군민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도 결국 정부가 강렬한 반대 시위에 굴복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도 주민이 처분장 유치를 결심하게 된 동기의 주요 원인은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고 또한 현지를 방문한 정부 고위층의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데, 다음날 정부는 약속을 뒤집고 보상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군민의 반발이 격심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신뢰도 상실이 처분장의 앞날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처분장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만으로는 처분장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 없다. 정부와 사업자는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에만 처분장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민은 과학적 사고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과학적 사실만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주민의 심리와 감성을 직시하는 사회과학적 접근법을 모색하여 주민을 설득하여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바꾸기로 주민의 선심을 사려는 얕은 생각, 방폐물을 수거물이라 부르고 방폐물 용기(드럼) 위에 걸터 앉아 방사선의 유출이 거의 없음을 TV 시청자에게 보이는 쇼만을 연출하는 등의 정부와 사업자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같은 안이한 생각으로 처분장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자못 의심스럽기만 하다. ☹